

■ 제 1 주 제

좋은 아파트의 개념과 실천 방향

강 인 호 (한남대학교 교수)

I. 좋은 아파트 : 개념정의의 필요성

1. 새로운 시기의 도래 - 양에서 질의 문제로

아파트 공화국이라 불리울 정도로 많은 아파트를 건설하여 온 그간의 국내 상황을 생각한다면, 좋은 아파트에 대한 명시적인 개념 규정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가 많지 않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 이유를 다른 한편에서 생각한다면 그간 아파트의 계획과 건설과정에서 작동해 온 패러다임은 ‘주택의 양적 충족’이었고, 개발중심의 가치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성장위주의 정책기조가 주류를 점하여 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과 정책기조 하에서는 좋은 아파트란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주변 지역의 개발에 이바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파트는 거주공간이기 이전에 지역개발의 매개체이고, 경기 부양의 중요한 수단이며, 주택 보급률 충족의 효율적인 방법이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주택 보급률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양적 충족의 요구가 퇴조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여전히 이전의 아파트에 대한 가치관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최근 아파트의 대체적 주거유형이 어떤 것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아파트 위주의 도시개발 내지는 도시재생 방식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분명히 주택의 양적 충족 시대를 넘어서서 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택 보급률이 높은 중소도시의 경우 이러한 문제를 더욱 민감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양적 충족 문제가 상대적으로 충족된 측면이 있고, 기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아파트라는 주거형식이 대도시의 아파트와 동일한 것이라도 상관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이제 아파트인가 아닌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아파트라며 어떤 아파트인가에 대한 질적 차원의 질문이 제기되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것은 1970년대 초반의 일이다. 통계조사를 통하여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는 것이 확인되자 일시에 ‘양에서 질로’라는 캐치 플레이즈가 급속하게 대두되고 주거공간의 질적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새로운 주거형식의 모색, 주택계획 방식의 전환, 밀도수준의 하향 조정 등 다양

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어난 변화들이라 할 수는 없다. 이 시기 주택계획의 변화를 가져 온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것이 사실이다. 서양에서 1960년대에 전반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근대건축에 대한 회의가 박스형의 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한 강력한 반동적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었고, 1960년대 전반에 걸친 사회 전반의 변화들 - 기성질서에 대항하여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광범위한 사회운동들, 예를 들면 68학생 운동 등과 같은 것으로 대변되는 변화들 - 그리고 1970년대 초반에 경제적인 충격으로 작용하였던 오일쇼크 등이 주된 변화의 요인들이 할 수 있다. 이들이 가지고 온 공통적인 변화의 내용은 대규모 개발의 퇴조, 다양한 가치의 수용, 고층고밀개발의 쇠퇴 및 저층고밀개발의 대안적 움직임 등으로 요약된다.

우리는 주택보급률의 증가 이외에 어떤 변화의 요인들이 내재하고 있는가? 고도 경제성장의 기조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저성장의 안정적 기조로 변환될 것인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수도권이든 지방도시든 관계없이 무리없이 수요가 형성될 것인가? 경제수준의 향상과 이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고층고밀 아파트에 대한 선호 경향의 변화 가능성은 없는가? 이들 제반 요인들에 대하여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답할 수 있는가?

2. 좋은 아파트 : 개념정의의 필요성과 관점

좋은 아파트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어떤 아파트를 만들어 낼 것인가를 설정하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경우는 좋은 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고는 정책에 대한 기본입장의 정립이나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좋은 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그것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한다는 의미이며, 정책이 '목표의 설정과 달성방법의 강구'라는 목표-수단의 연계적 활동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책을 통하여 좋은 아파트를 실현시키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 전제해야 하는 것은 '좋은 아파트'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좋은 아파트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주체가 정의하는가에 따

라서 다양한 접근과 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좋은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일반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는 시장에서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가격이 높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자연환경 조건이 좋은 아파트일 수도 있으며, 실내의 마감 및 설비가 첨단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일 수도 있다. 또는 건축적 형태미가 아름다운 아파트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 주택의 양적 공급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질적 추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시점에서 좋은 아파트를 어떤 관점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개념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매우 필요할 뿐 아니라 향후 주택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지역의 주택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좋은 아파트를 개념 정의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구하는 정책적 목표의 전제로서 정책 자체가 갖는 철학, 관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념을 설정하는, 일종의 정책 수립 행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좋은 아파트의 개념이란 정책기조에 따라 주거환경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에 대하여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는 동태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3. 좋은 아파트 : 개인적 판단과 공공적 판단의 충돌

만일 좋은 아파트의 개념이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책적 판단의 한 부분으로서 정책기조에 따라 변동되는 동태적인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정의되는 좋은 아파트의 이미지 또는 개념과 충돌할 가능성이 항상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치단체에서 생활공간의 환경을 전원적인 분위기를 유지한다는 강력한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 좋은 아파트는 전원적 분위기에 어울리는, 저층형의 아기자기한 형태의 아파트를 의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장치를 동원할 것이다. 또한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강력한 성장과 개발의 정책을 가지고 도시적 활력을 중시하는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경우 좋은 아파트는 도시적 분위기를 담고 있는, 고층형의 상가복합형 아파트를 지칭할 수도 있고 이를 정책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이 경우 지역적 특성과의 부합이라는 측면에서 각각은 나름대로 정당성과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지만, 각 개인의 차원에서 본다면 정책기조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각자가 좋은 아파트라고 생각하는 주거공간의 이미지와 특징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 기조에 따라 좋은 아파트에 대한 판단과 정의가 유동적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정책기조와는

무관한 근원적이고 공통적인 차원에서의 좋은 아파트에 대한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좋은 아파트의 구체적 특징보다는 좋은 아파트가 되기 위한 기본적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II. 좋은 아파트의 기본조건 검토

1. 기존 아파트의 특징과 형성배경

(1) 고층 아파트, 판상형 평행배치방식, 또는 요철형 아파트

근대 시기에 있어서 좋은 아파트는 소위 ‘채광과 통풍’으로 대변되는 위생학적 주거공간 개념에 충실한 아파트를 의미한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겪어야 했던 유럽 사회의 혹독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주기적인 전염병의 발생, 비참한 도시노동자의 생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했다. 이 시기에 노동자의 주거는 채광과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열악한 조건을 가진 것들이었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택계획의 모든 이슈는 채광과 통풍으로 집중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서양의 근대 시기에 주택이 갖는 모든 가치의 중심은 위생학적 문제에 대한 대응력에 따라 판단되었다. 이는 단순히 주택의 내부공간에 햇빛이 잘 들도록 고려하고, 통풍이 이루어지도록 개구부를 신경써서 배치하는 문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주택유형이나 주거환경을 구성하는,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고층 아파트를 통한 문제의 해결과 이의 미학적 포장’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들은 다른 가치들, 즉 산업사회에서 대두되는 새로운 생산양식 - 공장제 방식의 소품종 대량생산 시스템- 에의 대응이라는 문제와 결합하여 장식없는 고층의 판상형 아파트를 일자 평행 배치하는, 소위 질렌바우 형식(Zielenbau)을 주류적인 주거형식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층 아파트는 르 꼬르뷔제의 녹지 위의 고층(tower in the park) 개념에 근거하는 것으로 동일한 밀도의 주거공간을 계획하는 경우 저층형의 높은 건폐율보다는 고층으로 건설하여 건폐면적을 줄이고 나머지 공간을 녹지로 사용하여 채광, 통풍을 해결하자는 주장으로 고층 아파트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주된 논리가 되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고층 주거형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논리를 근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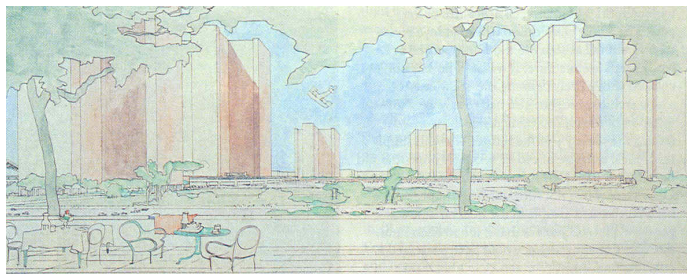


그림1. 녹지위의 고층 개념 (르 꼬르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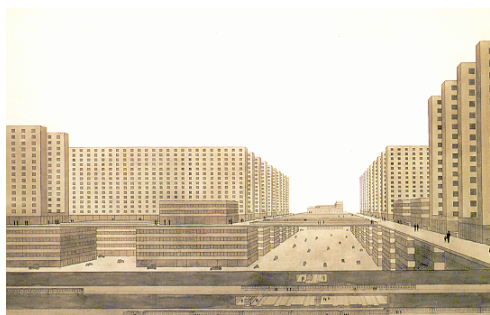


그림2. 미래도시 구상 (힐버샤이머, 1922)



그림3. 고층개발의 논리

그림 4는 발터 그로피우스가 1928년 계획한 다머스톡 단지의 배치도이다. 이 배치도를 보면 그야말로 획일적인 판상형 주거동의 일자 평행배치의 전형을 보여준다. 이 방식은 질렌바우(zielenbau) 형식으로서 이러한 단지계획이 받아들여진 이면에는 당시 문제가 심각하였던 채광 및 통풍의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해결해야 할 문제였고, 이러한 질렌바우 형식이 그러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을 중심으로 자이트룽엔(Siedlungen)이라 불리는 대규모 주거단지가 확산되었고, 이들의 배치는 질렌바우 형식이 주도적인 것이었는데 이는 기본적인 패러다임 자체가 모든 세대에 균등한 일조 및 통풍을 제공한다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후일에는 주거계획을 위생학의 문제로 국한하고 거주공간을 획일적이고 건조한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단지계획의 특성과 그렇게 이루어진 배경을 생각한다면 단지계획이 진행되는 과정과 방식은 단지계획을 수행하면서 전제하는 주거공간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4. 그로피우스가 계획한
다머스톡 단지 (Siedlung
Dammerstock, Karlsruhe, 1928)

그림5 역시 그러한 상관성을 보여준다. 맨하탄에 있는 퀸즈브리지 단지는 주거동 유형이 Y자형 주거동의 연속적인 집합이다. 이 방식을 사용하면 단순한 주거동을 반복사용하면서 얻어지는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외기에 면하는 벽면이 증가하여 채광 및 통풍에 유리한 주거동 타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들이 모여서 하나의 광장을 중심으로 배치되는 방식을 보면 광장을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채광, 통풍, 경제성 등의 몇가지 키워드가 떠오른다. 이중 요철형은 국내에서는 마포 아파트 등 일부에서 시도되다가 대부분 판상형 주거동이 선택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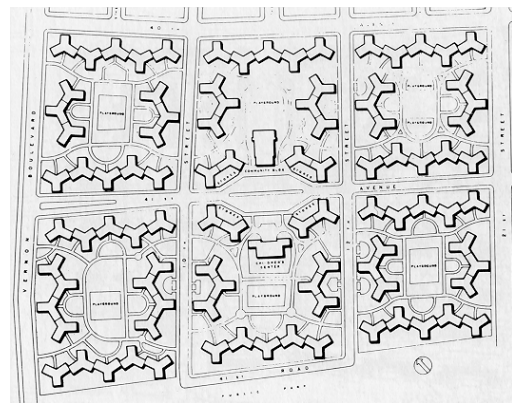


그림5. Queensbridge Housing, New York

(2) 대규모 개발, 단지식 아파트

우리나라에서 아파트의 효시를 어느 것으로 보는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대체로 마포 아파트를 본격적인 아파트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포 아파트가 건설된 1962년도 이전에도 종암 아파트나 기타 몇

개의 아파트가 건설된 것이 사실이다. 마포 아파트를 아파트의 시작으로 보는 데에는 ‘단지식’이라는 전제가 붙는다. 그런만큼 ‘아파트=단지’ 라는 등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이론적 논거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된 것중의 하나는 1929년에 페리(C.A.Perry)가 제안한 근린주구론(Neighbourhood Unit)이다. 이는 당시 미국사회에 대두되던 공동체 붕괴 현상, 전통적인 가치관과 배치되는 개인주의적 경향의 팽배 현상 등에 대하여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분위기 속에서 주거공간의 계획을 통하여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제안이었다. 그가 제안한 근린주구론은 요약한다면 반경 400미터 정도의 범위를 갖는 공간 안에서 가급적 자동차의 유입을 억제하고, 중심에 학교 및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이 영역 안에서 사람들은 도보로 중심으로 생활하고 중심의 커뮤니티 시설을 매개로 다양한 교류를 형성함으로써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농촌적 이웃관계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근린주구론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파급이 이루어져 주거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이론으로 정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도시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를 전제로 하는 단지식 주거공간 구성을 견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¹⁾



그림6. 근린주구론 -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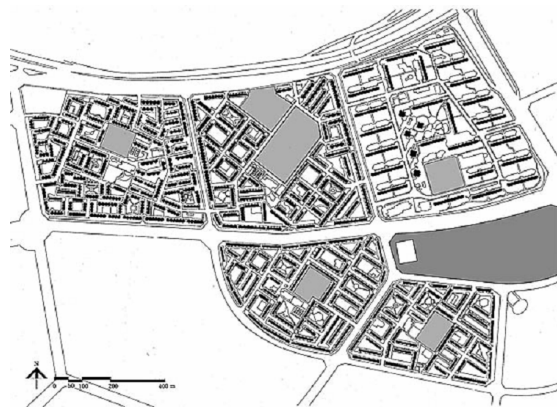


그림7. 잠실지구 - 근린주구론의 초기적용

- 1) (주택법 제2조 4항) "주택단지"라 함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기존 아파트의 비판과 문제점

기존의 아파트가 갖는 특징은 고층을 통한 거주환경의 개선과 커뮤니티 구성을 위한 단지식 주거공간 계획으로 요약된다. 즉, 고층형의 주거단지로서 일자 평행배치되는 방식, 또는 채광과 통풍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주거동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단지식 아파트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들 아파트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새삼스럽게 ‘좋은 아파트’에 대한 개념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사진은 판상형의 고층 주거동을 평행배치하여 단지식으로 구성한 아파트의 모습이다.



그림8. 고층-판상형 평행배치-단지식 구성

이 사진을 보면서 이곳이 좋은 아파트의 모습을 대변할만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만일 이곳이 그리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면 이전에는 가장 바람직한 특징으로 제시되고 지지받았던 각종 이론적 논의들이 더 이상 지지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들이 지지받지 못하는 이유를 살핀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좋은 아파트’의 키워드를 탐색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이 갖는 비판의 요지는 대부분 다음의 몇 가지로 집약된다.

- ① 주거환경의 무미건조함
- ②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 ③ 도시공간과의 단절과 폐쇄적 단지공간
- ④ 생활의 다양성을 위축하는 단선적 공간구성

이들 문제들은 그간 수없이 지적되어 온 문제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지적이 비판이나 비난으로 끝나지 않고 대안의 모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 이들 비판이 갖는 의미는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의 비판이 전제하는 생활의 모습, 바람직한 삶의 모습, 도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다.

2. 기존 아파트에 대한 비판과 반성

이전의 아파트들이 비판받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생활을 단선적이고 기능적,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소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우리의 아파트가 갖고 있는 형태적, 공간적 특성이 통풍과 환기로 대변되는 위생학적 문제들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이제 그러한 가치들이 주거공간의 형태를 규정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에는 우리의 생활수준이나 경제수준이 그 단계를 훨씬 넘어서 있고, 따라서 새로운 가치의 추구가 이루어질 필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새로운 가치란 생활행위에 대한 새로운 해석, 폐쇄적이고 내향적인 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생활에 대한 정형화된 정의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해석과 수용 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주거공간의 해석과 관련하여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내는데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몇 가지를 따져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도시적 개방성과 생활의 다양성

도시는 개방시스템이며 농촌적인 정주 커뮤니티 모델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도시 내에 한정된 공간단위의 주거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은 이미 1960년대 이후 꾸준히 지적되어 온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진행되는 주거공간은 이와는 무관하게 자족적이고 내향적인 생활양식, 이웃관계 등을 전제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미 사회는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재편되어 있고, 공간적으로 한정된 커뮤니티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근본적으로 도시 자체가 농촌 마을과 같이 한정된 공간단위를 전제로 하는 이웃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일상생활의 비분절성 - 다양한 선택성의 증대

우리의 생활은 대단히 비분절적이고 다양한 행위의 복합으로 이루어진다. 지나치게 기능공간을 배치하고 행위-장소의 일대일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의 생활과 공간의 대응을 경직된 관계로 몰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행하는 각종 일상적인 생활행동 중에는 특정한 기능적 행위들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우발적 행위들이 존재하며 비 예측적인 행동들이 다수 포함된다. 우연적 행위는 행위의 특성에 대응하는 장소에 한정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좋은 주거공간은 삶의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공간이어야 한다.

(3) 도시, 지역의 맥락과 주거공간의 대응

주택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은 도시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도시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것이 도시, 지역의 물리적, 공간적 시스템 속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맥락적 환경에 대응하고 이들 속에 유연하게 편입되지 못하면 도시공간 시스템에서 이들이 갖게 되는 기능이란 이질성, 분절성 등 부정적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간은 개별 건축물의 특출한 디자인으로 만들어지는 힘보다는 이들이 연합하여 만들어 내는 집합의 논리, 집합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맥락적 환경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점에서 개별 건축물, 개별 주거단지의 완결성보다는 조화, 상보적 관계, 전체 속에서의 부분의 역할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Ⅲ. 좋은 아파트 만들기 : 키워드의 모색

1. 생활의 기능적 해석과 공간 배치의 유연화

원론적 정의에 의한 단지계획은 상위적으로는 도시공간질서에 부합하면서 하위적으로는 주거동, 동선, 공원, 녹지, 부대시설 등이 통일된 공간질서 속에 놓여서 쾌적한 주거공간을 형성하는 일을 지칭한다. 그러나 다음 사진은 아파트 설계를 하면서 사용하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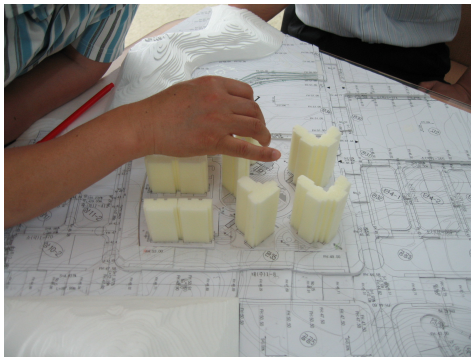


그림9. 스티로폼을 이용한 단지설계 방식

좋은 아파트를 실현하는 계획방식으로 우리는 스티로폼 설계방식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스티로폼 설계가 열등한 설계방식이거나 반드시 피해야 할 계획방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동일한 형식의 주거동을 반복배치할 필요성이 높거나 밀도 조건에 부합할 잠재력이 있는 주거동 형식중에서 범용적이고 적절한 단위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동 유형을 사전 검토하고 이를 구상하고 있는 단지공간구조를 편성하는데 동원할 수 있고, 이는 그리 이상한 접근방식이라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단지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점은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생활의 구조, 생활의 모습이 지나치게 기능적이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관념적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또는 이와 관련하여 관행적인 계획방식에 익숙해져서 흔히 사용하는 판상형, 탑상형 주거동을 적절히 배치하는 것을 단지계획의 본질이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가 더 경계할 일일 것이다. 만일 이러한 계획방식이 우리의 생활을 균질적인 공간에 수용할 수 있다고 믿는 데에서부터 출

발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설계방식이 균질적 공간과 이로 인한 균질적 생활을 만들어 내는 주된 요인으로 작동하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공간이 규격화한다는 것은 생활을 규격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주거문화의 규격화, 경직성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계획방식은 주거동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상호관계, 마이크로한 장소성에 대응하는 외부공간과 주거공간의 구성 등 다양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률적이고 균질적인 주거동을 반복 사용하여 배열함으로써 다양한 생활의 전개, 장소성의 확보 등 당연히 추구할 필요가 있는 설계상의 이슈를 모두 단순화하고, 이를 표준화, 균질화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의 생활 자체를 균질화하고 단순화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즉 거주자의 생활을 단위주거 내부에서의 생활, 옥외공간에서 보행, 휴식, 놀이 등의 기능적 행위구분이 이루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각각에 대응하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방식이 일관되게 생활-공간의 대응으로 해석되고 이를 기반으로 단지계획이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나 지침의 설정에서 유연한 공간적 장치들이 가능하도록 융통성 있는 계획의 운용이 필요하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좋은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적, 제도적 장치로서 심의지침이나 조례의 운용은 그 자체로서 필요한 일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거나 규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항상 규제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2. 일상적 생활과 틈새적 공간의 확충

우리가 전제하는 생활의 모습은 실제로 어떤 것인가? 관념으로 구축된 생활의 서술이 아니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을 상기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소소한 일상이 건축공간에 담겨야 할 실제적인 생활의 모습들이라면 그것에 대응하는 건축공간의 모습도 상당히 달라져야 할 것이다. 대학교의 경우를 보자. 학생들은 학교에 오는 이유가 공부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는 교실과 각종 실험실, 도서관, 식당, 학생 휴게실, 교수연구실 등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행하는 일상적 생활을 보면 어디에서도 수용되지 않는 행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공강시간에 잠시 친구들과 종이컵 구겨서 제기차기, 복도를



그림10. 다양한 행위의 발생

지나다 언뜻 궁금해서 한쪽 구석에 앉아 사전찾기, 우연히 친구를 만나 계단에 걸터앉아 이야기하기 등 우연적이고 기능적 행위와 행위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래서 어떤 공간에 수용되어야 하는지 애매한 다양한 행위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학교생활의 일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들의 한 부분이다.

주거공간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주거단지 내에서는 다양한 틈새적 행위들이 발생한다. 아이들은 반드시 놀이터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며 주차장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기도 하고 보도에서 배드민턴을 치기도 한다. 주거동 현관 앞에서 소꿉놀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웃집 아주머니 만나서 주거동 현관 앞에 서서 한참동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할수록, 이러한 일들이 더욱 많아질수록 더 풍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생활의 경험을 갖게 되고 이는 생활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집앞에서의 놀이, 위펜브르흐, 네덜란드



가로공간의 생활공간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그림11. 일상적 생활행위의 발생

3. 공간 상호간의 관계 회복 : 점점공간의 계획

단지공간에서 다양한 생활들이 유발되는 중요한 공간은 기능적으로 정의된 공간단위들보다는 이들이 상호 접속하는 점점공간들이다. 하브라켄(N.J.Habraken)은 주택을 5가지의 레벨이 종합해야 비로소 온전한 기능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각

각의 레벨은 서로 결합하여야 통일적이고 완결적인 공간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한다.

명목상 계층	통 일 체		단 위 주 거	주 거 동	단 지	도 시
주요간선도로	이 윗					
도 로	블 락	도 시				
건물요소	전조공간	단 지				●
칸 막 이	방	주 거 동			●	●
가 구	장 소	단 위 주 거	●	●	●	●
신체와 가구						
그림12. 하브라켄 : 레벨의 조합		그림13. 단지공간의 위계와 조합				

단지공간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공간구조의 위계를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공간-단지공간-주거동-단위주택으로 이어지는 각각의 공간적 위계를 대상으로 각각의 공간단위들을 완결적이고 자기 충족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근대건축이 추구하였던 가치였다면, 이에 반해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것은 이들 각 공간단위들이 접속하여 만들어 내는 점점공간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점점공간을 형성하는 것만도 아니다. 도시공간과 단지공간이 접속하면서 단지외곽부와 도시가로가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나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주거동이 직접 도시공간에 연접하여 가로를 수식할 수도 있고, 직접 출입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도 있다. 이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접속하면서 다양한공간의 층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의 생활은 위계적이지도, 기능적으로 명확한 분절이 이루어져 있지도 않은, 대단히 유기적이고 복합적인 것이다.



도시공간-단지공간의 점점



도시공간-주거동의 점점

미나미아시아하마, 오사카, 일본



도시공간-단위주택의 점점
오지마 단지, 동경, 일본

폴 하우스, 로테르담, 네덜란드



단지공간-단위주택
비키 신도시, 핀란드

그림14. 점점 공간의 계획

단지계획의 기본적인 과제는 거주자들이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간 구조를 편성하고 이를 적절한 시설배치와 주거동 배치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전체 공간구조 속에서 전개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행위들, 이를 수용하는 틈새적 장소들을 마련하는 일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